

PTT, 타이 PP 30만톤 플랜트 건설

국영 NPC 지분참여 가능성 ... TOC는 에틸렌 및 EG 생산능력 확대

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PTT)가 타이 Map Ta Phut PP(Polypropylene) 30만톤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 파트너기업과 협상에 들어갔다.

PTT는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총 2억1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적절한 파트너를 찾지 못하면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PP 30만톤 플랜트는 PTT의 2번째 PP 플랜트로 Map Ta Phut에서 PP 35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PTT의 자회사 National Petrochemical(NPC)이 지분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PTT는 NPC의 지분 37.0%를 소유하고 있으며 타이 정부는 PTT의 지분 69%를 확보하고 있다.

PTT는 최근 아시아 지역의 PP 수요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어 2005년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PP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

PTT의 또 다른 자회사 Thai Olefins(TOC)도 2006년까지 에틸렌(Ethylene) 생산능력을 100% 확대하고 EG(Ethylene Glycol)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ementhai Chemicals 및 Mitsubishi Rayon의 합작기업 Thai MMA는 MMA(Methyl Methacrylate)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Butyl Methacrylate 플랜트를 신설할 계획이며, 또 다른 합작기업인 Siam Mitsui PTA는 2005년 완공을 목표로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생산능력 확대 및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Cementhai는 또한 중동석유화학 합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협상중에 있으나 세부사항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Thai Petrochemical(TPI)는 플랜트 건설 및 Debottlenecking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으며 부채 구조조정 플랜이 완성되면 곧 프로젝트 런칭에 들어갈 계획이다.

<Chemical Journal 2004/03/02>